국가예산 확보 · 속도감 있는 추진 총력

조봉업 행정부지사, 중앙부처 방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조기 추진 · 문화관광 분야 국가예산 반영 협조 요청

전북도가 내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국가예산 최다 확보와 주요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행정·정무부지사가 2주 전 나란히 국회를 방문해 지역 정치권과 탄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차례로 방문, 주요 국가예산사업의 국회단계 반영과 더불어 속도감 있는 추진을 건의했다.

14일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지휘부 릴레이 활동으로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조기 추진과 '문화관광 분야 국가예산 반영' 협조를 적극 요청했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지휘부 릴레이 활동으로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조기 추진과 '문화관광 분야 국가예산 반영' 협조를 적극 요청했다. (왼쪽부터 기재부 강완구 사회예산심의관, 조봉업 행정부지사)

먼저, 조 부지사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조기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이 연말까지 고시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협의 이행을 건의했다.

국토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연말 고시를 위해서는 사전협의 절차가 10월 중에는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부처를 적극 설득했다.

도는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연말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내년에는 턴키 방식 발주로 공항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개항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어, 조 부지사는 기재부 강완구 사회예산심의관을 만나 '전라유학진흥원 건립'과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이 전북 자존의식 고취와 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고, 국회단계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들은 지난해 국회 단계에서 정치권과의 공조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확보했으나, 중앙부처 수시배정 등으로 인해 용역 추진이 늦어진 점을 설명했다.

조 부지사는 조속한 진행으로 중간 결과를 도출해 국회 심사에 대응할 계획이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의견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조 부지사는 기재부 한훈 차관보와도 자리를 함께하며, 전북도 국가예산 최다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을 논의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한편, 전북도는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국회 단계 대응 체제로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9일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국가예산 확보 전략회의'를 통해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22일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28일에는 연고 국회의원과 각각 릴레이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전북도 국가예산 최다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북 수영 선수들이 정강선 전북체육회장과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북체육 위상 'UP'

전국체전 출전 전북선수단, 총 63개 메달 획득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북 선수단이 전북도민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했다.

14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경북 일원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서 전북 선수단은 금메달 19개, 은메달 18개, 동메달 26개 등 총 63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대회를 마감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대학·일반부는 열리지 않고 고등부만 치러졌으며, 도내에서는 36개 종목 461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고등부 경기만 열리면서 시·도 간 종합순위는 매겨지지 않았지만 최종 집계결과 전북 선수단은 10위(금메달 획득기준)를 기록, 이번 메달 획득 수는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전북 선수단은 펜싱 에페 개인전에서 이나영(이리여고)이 첫 금메달을 획득한 이후 순조롭게 출발했다.

역도 임병진(순창고)은 인상과 용상, 합계 등 3관왕에 올랐고 레슬링 김경태(전북체고) 선수가 2008년 이후 18년만에 그레꼬로만형과 자유형 모두를 석권하면서 2관왕을 차지하였으며, 전국체전 출전 사상 남자 고등부 최초로 육상에서는 문해진(전북체고)이 100m와 200m를 석권하면서 2관왕에 올랐다.

또한 체급종목인 태권도와 레슬링을 비롯해 기록종목인 자전거와 사격 등에서 예상외 선전을 해주면서 금메달이 쏟아져나왔다.

아울러 축구 영생고와 농구 전주고 등 단체종목에서도 선수들의 투혼을 발휘했다.

전북체육회는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의 사기 진작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전북스포츠과학센터 연구원들과 선수트레이너를 현장에 파견, 밀착지원을 펼쳤다.

정강선 회장은 "이번 전국체전에서 전북 선수단이 보여준 투혼과 열정, 감동이 도민들에게 큰 힘이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북체육의 위상을 드높이고 선수들이 오롯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 2022년 열린관광지 공모 전국 최다 선정

전북도가 '여행·체험 1번지' 이미지에 한 발 더 다가갔다.

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2년도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에 전국 최다인 9개소가 선정되며, 국비 22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번에 선정된 전국 8개 지자체 20개 관광지점 중 전주시와 남원시, 진안군, 부안군 등 4개 지자체 9개 관광지점이 선정되며, 45%의 독보적인 선정률을 선보였다.

이번에 선정된 전주시는 전주동물원과 전주남부시장, 덕진공원 등 3개 지점에 15억 원(국비 7억5천만 원, 시비 7억5천만 원)을, 남원시는 광한루와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등 2개 지점에 10억 원(국비 5억 원, 시비 5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진안군은 마이산 도립공원 남부·북부 2개 지점에 10억 원(국비 5억 원, 군비 5억 원), 부안군은 변산과 모항해수욕장에 10억 원(국비 5억 원, 군비 5억 원)을 투자한다.

이들 4개 시·군은 시각장애인 안내판 설치, 무장애 진입로 등을 설치해 장애물 없는 관광지로 거듭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2021 전북도 창업대전'이 14일 군산대학교 아카데미홀에서 선포식을 갖고, 2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도내 최대 스타트업… '전북도 창업대전' 개막

29일까지… 민간 첫 참여 · 메타버스 방식 비대면 행사로 개최

기업투자 17.5억 · 혁신창업 투자조합 5억 결성 등 실질 성과 도출

도내 최대 스타트업 행사인 '2021 전북도 창업대전'이 14일 군산대학교 아카데미홀에서 선포식을 갖고, 2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올해 창업대전은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비나텍 성도경 위원장)를 발족, 9개 기관이 함께 진행한 '투자팡팡 위크'와 메타버스 방식 온라인 행사장 참여 등 다양한 첫 시도가 돋보였다.

이날, 민간조직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선포식에는 전북도 신원식 정무부지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윤종욱 청장, 군산시 강임준 시장을 비롯, 민간조직위원과 군산대·전주대·원광대?전북대 창업지원단장,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창업기업의 성장을 의미하는 '2021 전북도 창업 팡!FAANG! 팡!!FAANG!!' 퍼즐 퍼포먼스를 갖고, 2주간의 창업대전의 시작을 알렸다.

또, 올해 5월부터 도내 24개 지자체, 창업지원기관, 민간투자사가 협업으로 '전북도 투자 팡팡 위크'를 추진하고, 도내 우수 창업기업 2개 사가 17.5억의 투자금을 유치, 그 성과를 알리는 협약식이 이날 진행됐다.

투자 협약식에서는 친환경 화학소재 개발로 익산시 금마면에 자리 잡은 '알커미스'가 'L&S벤처투자'로부터 15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알커미스'는 폐기물로 분류되는 왕겨를 활용, 세계 최초의 퇴비화 플라스틱 필름을 제조했으며, 오는 2025년 연매출 1천억원을 목표로 투자유치를 통한 생산과 설비구축에 본격 돌입하게 된다.

'L&S벤처투자'는 올해 3월 전북도와 비나텍(주)이 함께 조성한 3백억 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모태펀드' 운용사로서 전북기업에 약 90억 이상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2월 설립된 지역 로컬식품 제조업체 '마마리사'도 액셀러레이터 유닉으로부터 2.5억 원의 투자를 유치, 로컬푸드를 활용한 식품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의 초기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는 '전북혁신창업 투자조합 1호' 결성식이 있었다.

㈜효성과 전북엔젤클럽(회장 김용),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바이오투자파트너스(대표 이기칠)가 총 5억원을 출자, 향후 5년 내에 전북도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70% 이상을 투자하게 된다.

한편, 군산대 체육관 2층에서는 사회적 문제 해결과 최신 경영 트렌드(ESG)를 반영하기 위한 소셜벤처 기업의 투자기반 행사도 함께 열렸다.

국내 최대 소셜벤처 투자사인 MYSC를 비롯, 언더독스, 임팩트스퀘어, 크립톤 등이 참여한 '소셜임팩트 챕터 별책부록 in전북'에서는 투자사가 바라보는 소셜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관점과 지속가능한 성장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이날 선포식에는 창업지원의 발굴과 육성에 기여한 김제시 남혜선 주무관, 전북대 창업지원단 조재홍 팀장, 전주대 유승일 팀장, 군산대 김선우 팀장, 한국탄소융합진흥원 김지도 책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박수정?김희수 사원 등 창업유공자가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신원식 정무부지사는 "전북도가 친환경, 제4차산업, 수소산업, 바이오 등 새로운 산업지도를 그리는데 도전과 창업이 필요한 요소"라며 "벤처기업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산?학?민?관 협업체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로 6회차를 맞이하는 창업대전은 전라북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민간조직위원회(위원장: 비나텍 ㈜ 대표 성도경) 등 총 32개 기관이 참여, 약 2주 동안 48개 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 대표 스타트업 행사다.

2021 전북도 창업대전은 10월 29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창업팀(063-220-8938, 8949) 및 온라인 홈페이지 '전북창업대전(www.jbstartup.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호상 기자

2022년 희망의 집 고쳐주기 개선방안 마련 위한 간담회

전북도는 2022년 복권기금 19억 원을 확보해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복권기금 19억 원을 포함해 사업비를 48억 원으로 확대, 약 700가구 이상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2022년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시·군의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13일 열린 간담회에는 14개 시·군 주거복지 담당자 20여명과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단독주택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고, 단순 개보수에서 벗어나 그린 리모델링, 유니버설과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건비 및 재료비 상승에 따라, 호당 지원금액을 최대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해 주거취약계층 대상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또한, 전북도는 내년부터 에너지가 절약되는 편리하고 안전한 주택 개·보수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호상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신원식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지난 13일 주한 덴마크 대사 주선으로 세계 1위 해상풍력 개발·투자 전문기업인 덴마크의 CIP(Copenhagen Infrastructure Partners) 야콥 폴슨 회장 일행을 만나 서남권 해상풍력과 관련해 전북도와 덴마크 간 관심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도, 해상풍력 관련 덴마크 기업과 면담

CIP 야콥 폴슨 회장 일행,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 관심 보여

신원식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지난 13일 주한 덴마크 대사 주선으로 세계 1위 해상풍력 개발·투자 전문기업인 덴마크의 CIP(Copenhagen Infrastructure Partners) 야콥 폴슨 회장 일행을 만나 서남권 해상풍력과 관련해 전북도와 덴마크 간 관심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3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아이너 옌센 주한 덴마크 대사와의 면담자리에서 덴마크와 전북도의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함에 따 이뤄진 일련의 과정이었다.

이 자리에는 신원식 정무부지사, 김유철 도 국제관계대사, 아이너 옌센 주한 덴마크 대사, CIP 야콥 폴슨 회장, COP 헨릭 쉐이만 대표, COP한국법인 예스퍼 홀스트 대표와 유태승 대표 등이 참석했다.

CIP 야콥 폴슨 회장 일행은 전북도가 공공주도형으로 추진하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

야콥 폴슨 회장은 "CIP가 보유한 해상풍력 분야의 풍부한 투자재원과 전문기술이 전북지역 해상풍력 개발 사업에 적용돼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옌센 주한 덴마크 대사는 "덴마크의 이스버그항은 과거에는 작은 어촌항이었지만, 현재는 유럽 해상풍력의 40%를 공급하는 지역으로 성장한 것과 같이 군산항도 해상풍력 지원항만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CIP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본사를 둔 에너지 인프라 자산, 특히 육상 및 해상풍력발전, 태양광발전, 그린 수소 등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및 개발에 특화된 글로벌 재생에너지 전문 투자회사이다.

현재 덴마크 국민연금(Pension Denmark)을 중심으로 150억 유로(약 2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유럽, 미주,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4개 대륙 14개 국가에서 친환경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 및 운용 중에 있다.

신원식 정무부지사는 "한국판 그린뉴딜 1번지인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은 민관협의회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해 사업추진에 성공한 국내 첫 사례임"을 강조했다. 이어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지역은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고, 공동주도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를 지원해 민간 발전사가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